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7. 5 | Vol. 269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제33회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 입재

법왕사에서는 4월 5일 제33회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를 입재합니다. 49재는 백고좌법회 기간 동안 매일 기도를 올리며 5월 23일 회향합니다.

영가천도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기도기간 중 선망부모와 조상 및 수자령가 들을 천도,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사경책을 한 권씩 정성들여 베껴 회향일에 불사르는 의식도 봉행합니다.

법회기간 동안 조상영가 천도재를 올림으로써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49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기도

삼 재 4월 25일(음. 3월 29일)
사 재 5월 2일(음. 4월 7일)
오 재 5월 9일(음. 4월 14일)
육 재 5월 16일(음. 4월 21일)
막 재 5월 23일(음. 4월 28일)
※영가 접수 받습니다.(매주 화요일 재일)
※영가 1위당 5000원

준비물

속옷 - 런닝, 팬티, 양말, 기타
겂옷, 신발(짚신) - 사중에 준비
세면도구 -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대야
공양미 - 3되3홉 또는 15,000원
수자령 - 분유, 배냇저고리, 과자, 유아복, 장난감 등

문의

법왕사 766-3747, 9088

※ 매 재마다 재물(과일, 떡)을 공양하실 분은 종무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Vol. 269호

- 04 깨침의 향기
지극한 효심이 불심도 깊다(2) · 원공당 정무 대종사
- 06 비슬산방
초파일과 새로운 발심 · 실상 주지스님
- 08 법왕논단
욕망이 과하면 괴로움도 커진다 · 본원스님
- 12 부처님 이야기 | 초기 원형불교 자료에 근거(22)
땃싸 부처님 이야기 · 영일스님
- 16 특집 | 부처님오신 날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 20 편액과 주련
부도암의 관음전과 선원 · 전일주
- 24 명찰 순례 | 화엄사
화엄세계의 중심사찰, 전남 지리산 구례 화엄사
- 28 법왕사소식
- 30 법왕사게시판
- 33 해오름소식
- 34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_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_대구, 라 07721 | 발행처_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_불기 2561(서기 2017)년 5월 1일 발행 | 통권_269호 | 종무소_T. (053)766-3747·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 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 강영도 | 편집위원장 원인스님 | 편집위원_모도, 영일, 상철, 자행, 자운, 강선옥 | 기획·제작·디자인_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극한 효심이 불심도 깊다(2)

원공당 정무 대종사



부부가 되려면 남녀가 서로 만나야 하는데, 만남에서는 정(情)보다 지성(知性)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성적으로 여섯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는 과식(過食)하는 사람은 안됩니다. 둘째는 과음(過飲)하는 사람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정신병과 같습니다. 셋째는 과음(過淫)이며, 넷째는 과로(過勞)입니다. 쓸데 없이 피곤하게 설치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다섯째 과태(過怠)로 게을러서도 안됩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너무 짙은 화장을 하는 사람도 안됩니다.

이 여섯 가지에 눈을 뜨고 지성적으로 판단해서 후에 이혼 도장 찍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친구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정으로 살고, 도반으로 살고 동지로 살아야 합니다.

『부모은중경』에서 설한 열 가지 부모님 은혜는 먼저 태에 품어 목숨 걸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이고 다음에는 낳으실 때 심한 고통 참아내어 건넨 은혜입니다. 그리고 갓난 아이 낳은 뒤에 모든 근심 잊은 은혜, 쓴 것은 골라 자기가 먹고 단 것만 찾아 먹인 은혜, 젖은 자리 갈아주고 마른자리 뉘신 은혜, 젖과 밥과 약으로 양육하여 주신 은혜, 더러운 것 싫다 않고 갈아주고 씻긴 은혜, 길 떠나면 올 때까지 걱정하며 애쓴 은혜, 자식 위해 몸쓸 짓도 마다 않고 하신 은혜이며 마지막으로 장성해도 한결 같이 사랑



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효도하게 되면 공덕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근면 성실해지고, 건강 장수하며,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항상 마음이 편하며, 내생에는 천상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불효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게을러서 못하고, 음주 도박하다가 못하며, 처자 편애하다가 부모한테 소홀하고, 유흥방탕으로, 그리고 범법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효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효를 하게 되면 과보를 받게 되는데 이것도 다섯 가지입니다. 못된 놈이라는 악명이 유포되고, 신심이 불안하며, 정법에 인연이 없고, 자기도 불효를 받고, 죽어서 아버지옥에 떨어집니다.

부처님은 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부모를 보되 자기 부모 같이 보아야 보살이라 한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이가 보살이다.”

효심이 불심이며 효행이 부처님 행인 것입니다. 효행은 만 가지 착한 일의 기본이며 천지신명을 다 섬겨도 부모님 잘 섬김만 못합니다. 부모야 말로 최고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혜 총명한 자가 있어 생사의 저 언덕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응당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합니다.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 섬

겨서 신인 듯 받들어야 하며, 부모님 생각대로 기쁘게 헤드리면서도 부모님 재산을 탐하거나 아첨하는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착한 것의 최상은 효도만한 것이 없고, 악한 것의 최상은 불효만한 것이 없습니다.

가정이 살면 노인문제도 안 생깁니다. 자녀문제도 안 생깁니다. 부지런히 열불하고 수행하고 참회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수행하는 사람이 진정 효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불교에서 효행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인간기본 교육입니다. 효행은 인간성 회복의 길이며 인간 성숙의 길이고 인간 완성, 성불의 길입니다.

요즈음은 불효하면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입니다. 요양원이나 병원에 부모를 내다버리고 가기 일쑤입니다. 예전에는 관공지에 버렸는데 요즘은 요양원에 버린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부모님과 일체중생의 생노병사(生老病死)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가했습니다. 성불하시고 먼저 카필라성에 가서 아버지 정반왕을 위해 설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반왕의 청에 따라 모친을 위해 도리천궁에서 90일간 설법을 했습니다. 부처님을 위시해서 역대조사가 효심 없이 도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효심이 곧 불심입니다.

원공당 정무대종사 열반 3주기 추모 범어집 『인생졸업장』에서

초파일과 새로운 발심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올해도 어김없이 초파일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61년 전 장차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실 카필라 왕국의 태자 싯타르타는 어머니 마야부인의 옆구리를 통해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태자는 고귀한 신분임에도 그 안락한 세상에 머물지 않고 사문유관을 통해 못 중생의 고통을 보시고 이 모든 번뇌와 윤회의 고통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해탈을 얻기 위해 표표히 출가하여 마침내 무상정등각을 이루어 부처님이 되시고 모든 중생에게 스스로 자신의 뒤를 이어 부처가 되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행하신 수행의 길은 바로 우리 중생들이 따라야 할 길이며 부처님께서 구하신 불멸의 불법은 우리 중생들이 해탈에 이르는 순간까지 지녀야 할 법등입니다. 올해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중생의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시어 스스로 깨달은 진리를 설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하여 부처님 오신 뜻을 다시 한 번 새겨야겠습니다.

우리 중생은 이날 마땅히 다음과 같이 귀의합니다. 일체의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모범을 보여주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만법의 왕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서원합니다.

저희도 부처님을 뒤따라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상락향의 해탈의 경지에 이르겠습니다.

저희는 해탈과 열반이 저 너머 피안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바세계에서 부처님의 법이 그대로 시행될 때에 비로소 이곳이 불국토임을 깨달아 모든 중생이 불국토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고 마침내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월초파일, 부처님오신날은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을 알게 된 역겁의 인연을 다시금 되새기는 날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부처님과의 인연이 멀어, 부처님 재세시에 태어나지 못하고 말법시대에 태어나 번뇌 속에 길을 잃고 헤매지만 그래도 부처님과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아 부처님께서 남기신 불법을 등불 삼아 수행할 수 있는 귀한 인연을 얻었습니다. 무한한 욕도 윤회의 순환 속에서 사람 몸 받기 힘들고, 그 가운데서도 불법의 인연을 얻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 몸을 받아 불법을 알고 있으니 이보다 더 복되고 값진 인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송이 연등을 준비하고, 한 개의 촛불을 밝히고 한 개비의 향을 태워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가져서 새로운 발심으로 초과일을 맞이하여야겠습니다. 우리의 지극한 정성과 불심만이 공덕을 이룰 것이며 부처님의 가피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초과일이 매년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중생심에 물들어 초발심의 굳건한 신심을 지속하지 못하고 속세의 번뇌에 찌들어 그만 잊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거듭 촉구하기 위한 시절 인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초과일을 계기로 대분심을 일으켜 대발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날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나투셔서 하신 첫 말씀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가고 아당안지(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 삼계가 모두 고통이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입니다.

우리가 발심하면 부처님은 마땅히 이끌어주십니다. 부처님이 탄생하신 진정한 뜻이, 일체 중생의 성불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 날을 맞아 우리 불자들도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아무쪼록 바른 법의 제자가 되기를 발원하신 법왕가족 여러분은 대발심으로 대자유를 얻으시길 불보살님 전에 기원합니다.

욕망이 과도하면 괴로움도 커진다

본원스님 / 명상수행원



진나라 재상인 여불위(呂不韋)가 문하의 학자들에게 의뢰하여 편찬한 명저 『여씨춘추(呂氏春秋)』에서 과도한 욕망이 부르는 폐해를 이렇게 지적한다.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도 도(道)를 알지 못한다면 어느 때인가는 반드시 파멸의 환난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빈천한 편이 낫다. 빈천하다면 큰 재물을 손에 넣을 수가 없으므로 과도한 사치를 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

수천년 인류의 뒤튼린 범죄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른바 ‘영웅 숭배’의 원조격, 그 자리에는 알렉산더가 있다. 피로 물들이며 짓밟은 점령지마다 그가 차지한 여인들로 넘쳐나고 왕성한 성욕을 그렇게 채우고선, ‘영웅호색’, ‘호걸본색’이라는 말에 가슴 설레며 좋아라 하며 더욱 기세가 올라, 또 다른 정벌계획을 세우고곤 한다.

동방원정길에 알렉산더가 부하와 씨름을 하다가 넘어졌다. 왕이 슬픔에 겨워 울기에 장수들은 왕이 승부에서 패한 것을 분하게 여겨 그러는 줄만 알고 몸 둘 바를 몰랐다.

그러나 왕의 눈물은 그 때문이 아니라 그가 땅에 쓰러지는 순간, 자신에게 다가올 죽음을 예감하고 흘렸던 것이다. 죽고 난 후에 자기에게 필요한 땅은 지금 자신이 누워있는 한 평 남짓한 그 넓이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안 것이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단편 ‘인간은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의 스토리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알렉산더의 눈물’을 모티브로 한 단편인 듯하여 흥미롭다.

사건의 발단은 화려한 도시생활을 하는

언니와 시골에서 농촌생활을 하는 동생의 대화에서 시작된다.

서로의 생활을 비판하는 두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동생의 남편 과혹이 “우리 농부들은 땅만 넉넉하다면 얼마나 다른 그 누구도 무서워할 것이 없다”며 편안하고 자유로운 농촌생활이 좋다는 아내의 말을 거들었다. 땅만 넉넉히 있으면 악마 따위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큰소리치는 과혹의 말을 듣고, 악마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과혹에게 땅을 넉넉히 주고 그 땅으로 미혹하리라 결심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어느 날 한 사람이 자기가 소유한 대지를 팔기 위해 내놓자 과혹은 그 동안 저축한 돈과 친척들에게 빌린 돈으로 계약금을 치렀다. 농사가 잘되어 1년 만에 빌린 돈을 다 갚게 됐다. 드디어 소원하던 땅 주인이 된 것이다. 처음에는 행복했다. 그러나 다른 농부들의 가족이 땅을 침범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등 잡음이 생기자 과혹은 땅이 좁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해마다 풍년이 들고 비옥하고 넓은 땅을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재산을 팔아 고향을 떠나 이주했다. 그가 가진 땅은 이전의 세 배가 됐고 살림은 그전보다 열 배나 나아졌다. 차차 생활이 안정되고 살림이 불어나자 이곳 역시 좁

게 느껴졌다. 그리고 분양 받아 농사를 짓기 보다 영원한 자기 땅을 소유하고 싶어졌다.

그러던 중 적은 돈으로 일년이 걸려도 다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땅을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그곳은 바스키르 원주민들이 사는 땅이었다. 듣던 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넓은 땅을 살 수 있는 곳이었다.

땅을 얻는 방법이 간단했다. 시작점에서 출발하여 원하는 땅을 팽이로 표기하고 해가 지기 전에 시작점으로 돌아오면 표기한 모든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뿔 듯이 기빠하며 길을 떠난 사내는 발길 닿는 곳마다 말뚝을 박아 표시하면서 좀 더 멀리, 한 평이라도 더 많은 땅을 가지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쉴 새 없이 온종일 걷고 또 걸어 열심히 다닌 덕에, 하늘과 지평선이 맞닿아 가물거리는 아득히 먼 땅이 이제 내 소유가 됐음을 흐뭇해 하며, 이만 하면 됐다 싶어 반환점을 돌았을 때는 이미 땅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을 때였다.

해 지기 전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는 서둘러 왔던 길을 열심히 내달렸다. 숨이 가빠 땅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언덕만 넘으면 된다는 생각에 고통을 참고 계속 뛰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앞으로 고꾸라지며 극적으로 시작점에 도착했다. 그러나 몹시 지친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입에서 단내가 나는 그 사내는 한 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서 검붉은 피를 토하며 쓰러져 죽어

버렸다.

결국 그가 필요로 한 땅은 사방 여섯 자 밖에 안 되는 작은 묘지에 지나지 않았다.

평화롭게 살고 있는 남의 나라에 쳐들어 가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만행을 저지르며 드넓은 땅, 대륙을 정벌한 왕이라 해도, 그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땅은 죽어서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관의 넓이 밖에 되지 않는다는, '실존의 허무'에 알렉산더는 통곡을 했고 자신의 운명을 예감이라도 하듯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인도를 정복하던 중 모기(학질)에 물려 죽는다. 대제국 건설의 야망을 가진 자가 기껏 미물인 모기에 그만 꺾여버리고 말았으니 이보다 더한 역설적인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는가.

열병, 학질(말라리아)에 걸려 앓다 죽으면서 “생이 이토록 짧은 줄이야! ……” 하며 탄식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삶을 마감하니 그의 나이가 겨우 29세였다.

인간의 삶이란 것이 그토록 짧고 허무한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무력으로 남의 나라를 짓밟아 그 나라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두고두고 원한을 맺는 앙금의 악순환의 씨를 뿌린 어리석은 침략 행위 대신, 마케도니아 학자로서의 길을 갔더라면 그 가치며 수명 또한 이보다 훨씬 더했을 것이다.

진(秦)나라부터 청(淸)나라 말까지 중국

역대 황제들의 평균 수명이 마흔살도 채 못 되는 39.2세였다는 중국의 보도내용을 외신 이 전한 바 있다. 그 이유로서 10대 초반부터 성생활을 시작한 주색의 육림(肉林) 속에서 성을 과도하게 탐닉한 때문이며 또 정력을 보강하기 위해 비아그라 같은 음약(淫藥)을 상복하여 비독(砒毒)이 축적된 때문이라고 했다. 황제들은 자기도취에 빠진 나머지 ‘영웅은 호색(好色)’이라며 심신을 해치는 과도한 성의 탐닉을, 제 편향대로 합리화하여 마음껏 쾌락을 즐겼다.

과도한 쾌락은 심신 해치는 독소

또한 황제들은 불로장생의 선약(仙藥)이요 회춘제라 하여 홍연환(紅鉛丸)을 과용하여 생명을 단축시켰으며 소녀의 경혈(經血)을 오매수(烏梅水)에 재어 만든 이 정력제 과용으로 당(唐)시대 황제가 6명이나 변사했고, 명나라의 세종(世宗)도 이 때문에 조사(早死)했으며, 13대 목종(穆宗)도 이를 과용해 재위(在位) 6년에 죽고, 그 뒤를 이은 만력제(萬曆帝), 태창제(泰昌帝)도 이 홍연환을 먹고 즉위한 지 몇 달 안에 죽었다.

중국 역대 황제들 수명이 39.2세였고, 번성했던 로마제국의 황제들도 평균수명이 37세였으며 우리 조선 왕조 왕들의 평균 수명은 43.4세에 불과했으니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는 부귀와 쾌락은 한낱 생명을 갉아먹는 독소임을 알 수 있다.

쉽사리 정욕의 늪에 빠지는 것은 비단 왕
뿐만이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수의 지배
권력자나 상당수 상류층 사람들이 능력을
자랑하고 돈을 앞세워 쾌락의 땃에 걸려 허
우적거리며 맥을 못 춘다.

진나라 재상인 여불위(呂不韋)가 문하의
학자들에게 의뢰하여 편찬한 명저 『여씨
춘추(呂氏春秋)』에서 과도한 욕망이 부르는
폐해를 이렇게 지적한다.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도 도
(道)를 알지 못한다면 어느 때인가는 반드시
파멸의 환난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빈천한 편이 낫다. 빈천하
다면 큰 재물을 손에 넣을 수가 없으므로
과도한 사치를 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

밖에 나가서는 수레(차)를 타고, 문 안에
서는 폭신한 침실을 즐긴다. 이것을 초궤(招
蹶)의 원인, 곧 각기병(脚氣病)의 원인이라고
한다.

맛있는 고기를 먹고 좋은 술을 마시면서
한껏 음식을 즐긴다. 이것을 난장(爛腸)의
음식, 곧 위장을 썩게 하는 식사라고 했다.

부드러운 살결과 흰 이를 가진 미녀와 음
란한 음악에 한껏 정신을 팔며 즐긴다. 이것
을 벌성(伐性)의 도끼, 곧 성명(性命)을 손상
하는 도끼라고 했다.

이 세 가지 환해(患害)는 부귀가 불러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옛 사람 중에는 부하고

귀해지는 것을 즐겨하지 않은 이가 있었다.
생명을 중하게 여겨서이다.”

“하늘이 보물을 소나기처럼 내려도 사람의
욕망을 채울 수는 없으리라. 욕망에는 적은
쾌락과 많은 괴로움이 있음을 아는 이는 현
자(賢者)이리라.”

〈법구경〉





땃싸 부처님 이야기

영일스님 / 법왕사 법사

지난호(2017년 4월호, vol. 268)에서는 보살(수메다)이 싯다타 부처님(연등불로부터 16번째 부처님)의 시대에 태어나서 수기를 받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싯다타 부처님은 어둠을 파괴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후, 법의 비를 내려 많은 중생들이 번뇌의 불을 끄게 한다. 그때 고타마 석가모니 부처님은 ‘망갈라’라는 고행수행자였는데, 잠부열매를 가져와서 싯다타 부처님에게 드린다. 그러자 싯다타 부처님은 ‘망갈라’에게 ‘미래에 고타마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선언’을 하신다. 싯다타 부처님은 10만년 동안 세상에 머물면서 많은 중생을 제도한 후, 아노마 숲속사원에서 반열반에 드신다.

우리 시대의 부처님인 고파마 석가모니 부처님이 최초로 붓다(Buddha)가 될 것을 결의한 때인 연등부처님(dipāṅkara-Buddha)부터 시작하여 까싸빠 부처님(kassapa-Buddha)까지 총 24분의 부처님들로부터 붓다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다. 이번 호에서는 연등불에서부터 시작하여 17번째의 붓다인 땃싸불(tissa-buddha)에게 수기 받는 내용을 불종성경(Buddha-vamsa)을 통해 보기로 한다.[불종성경(Buddha-vamsa)_ (CST4: KN-Bvm, ch.19, vs.1-28) 의역요약]

_*(아래 주석 1번 참조)

1. 땃싸 부처님 이야기_part 1

[vs. 1-3]_싯다타 부처님에 이어서, 무엇과도 같지 않고 견줄 수 없는 사람이며, 제한 없는 빛과 한량없는 명성을 가진 세상의 최고 지도자인 땃싸 부처님이 출현하신다. 그 어둠을 파괴하고, 신의 세계에까지 빛을 확산시키고, 동정심을 갖추고, 통찰력을 갖춘 위대한 영웅(māhāvira)이 세상에 출현하신다. 그는 또한 비할 바 없는神通력, 계율, 선정을 모든 측면에서 완성시키고, 법의 마귀를 굴리신다.

[vs. 4-5]_그 [땃싸부처님은 일만세계에 그의 정화된 말을 알리는데, 첫 번째 설법시에 100쵸띠(10억)의 중생이 통찰을 얻게 된다. 두 번째설법에서는 90쵸띠(9억)의 중생이,

그리고 세 번째설법에서는 60쵸띠(6억)의 중생이 통찰을 얻게 된다. 그는 집착하는 인간과 신들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vs. 6-8]_ 세상의 최고 지도자인 땃싸 부처님에게는 세 개의 모임이 있는데, 번뇌(āsava)가 파괴되고, 흠이 없고, 마음이 평화로운 그러한 모임이다. 첫 번째 모임은 번뇌(āsava)가 파괴된 10만명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 모임은 9백만명으로 구성된다. 세 번째 모임은 8백만명으로 구성되는데, 번뇌(āsava)가 파괴되고, 흠이 없고, 해탈의 꽃이 활짝 핀 모임이다. _*(아래 주석 2번 참조)

2. 수기

[vs. 9-12]_그때 나(고파마 부처님)는 수자따(sujata)라는 왕족(khattiya)이었는데, 큰 부를 버리고 유행수행자가 되기 위해 출가한다. 내가 출가할 때, 세상의 지도자(땃싸 부처님)가 출현하신다. [그때 '붓다(buddha)'라는 소리를 듣고, 나에게 환희심이 일어난다. 그리고 천상의 만다라와 꽃과 연꽃 그리고 홍두화를 양손에 들고, 서둘러 [그 부처님에게] 다가간다. 네 개의 광채에 둘러싸인 세상의 최고 지도자인 땃싸 부처님에게 다가간 후, 나는 그 꽃을 잡아 승자의 머리에 꼽는다.

[vs. 13-14]_ [그러자] 또한 그 [땃싸] 부처님은

사람들의 한 가운데에 앉아서 나에게 수기를 다음과 같이 하신다: “지금부터 92겁 후에 이[수자]때는 부처님이 될 것이다. 힘찬 정진을 하고, 하기 어려운 고행을 하며, 앓싸타(assattha)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깨닫고, 큰 명성을 얻게됨을 알게 될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마야(māyā)’라 하고, 아버지는 쑤도다나(suddhodana), 그리고 그는 고타마(gotama)가 될 것이다. 켈리따(kolita)와 우빠땃싸(upatissa)가 그의 상수 비구 성문제자가 될 것이며, 아난다(ānanda)라는 시자가 그 승자(jina)를 시봉할 것이다. 케마(khemā)와 우팔라완나(uppalavannā)가 그의 상수 비구니 성문제자가 될 것이며, 그 세존이 깨달음을 얻은 나무는 앓싸타(assattha)라고 할 것이다. 찌따(citta)와 하탈라와까(hatthālavaka)가 그의 상수 재가 남성신자가 될 것이며, *웃따라(uttarā)와 난다마따(nandamātā)가 그의 상수 재가 여성신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고타마 부처님의 수명은 100년 정도가 될 것이다.” *(아래 주석 3번 참조)

비할 데 없는 위대한 성자(땃싸 부처님)의 말을 듣고, 신과 인간들은 기뻐하면서 ‘이것이 불종자(buddha-bija)이다’라고 생각한다. 부처님의 선언이 계속되자, 일천세계의 신들은 박수를 치고, 웃으면서, 합장한 손으로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수호자땃싸 부처님의 회상에서 실패한다면, 먼 미래에 이 [고따마] 부처님과 대면할 것이다. 마치 [지금] 강을 건너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쪽 강 언덕에 이르는 여울목에 이르지 못하자 [나중에] 좀 더 낮은 쪽의 여울목을 타고 큰 강을 건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지금] 우리가 이 [땃싸부처님]의 말씀을 놓친다면 먼 미래에 저 [고따마] 부처님과 대면하여 [그의 가르침을] 알게 될 것이다.” *(아래 주석 4번 참조)

[vs. 15] 내가(수자[마]=미래의 고타마 부처님) 이 말을 들은 후에, 마음이 더욱더 기뻐지고, 10바라밀(pārami)을 충족하기 위한 결의를 더욱더 다진다.

3. 땃싸 부처님 이야기_part 2

[vs. 16-18] 위대한 성자이신 땃싸 부처님이 살던 도시의 이름은 케마까(khemaka)이고, 자나산다(janasandha)라는 왕족(khattiya)이며, 어머니는 빠두마(padumā)이다. 그는 7천년 동안 집에서 머무는데, ‘구하셀라(guhāsela), 나리사야(nārisaya), 니사바(nisabhā)’라는 세 개의 뛰어난 궁전을 가지고 있다. 3만명의 아름답게 장식된 여인들이 있으며, 부인의 이름은 수밋다나미까(subhaddānāmikā)이고, 아들은 아난다(ānanda)이다.

[vs. 19-20] 인생의 네 가지 특징적인 모습 (cattāro nimittā)을 본 후에, 말을 타고 출가한다. 승자(땃싸 부처님)께서는 8개월간 고행정진을 하신다. 세상에서 최고의 지도자이고, 위대한 영웅인 땃싸 부처님은 범천의 권청이 있자 뛰어난 야사와띠(yasavati: 사슴동산)에서 범의 바퀴를 굴리신다.

[vs. 21-23] 땃싸 대성자의 최고 상수 비구 성문제자의 이름은 브라흐마데와(brahmadeva)와 우다야(udaya)이고, 시자는 사망가(samaṅga)이다. 그리고 최고 상수 비구니 성문제자의 이름은 땃싸(phussā)와 수닷따(sudatta)이다. 그 세존이 깨달은 나무는 아사나(asana)라고 불린다. 으뜸가는 재가 남성신자는 삼발라(sambala)와 시리마(sirimā)이고, 으뜸가는 재가 여성신자는 까사고따미(kisāgotami)와 우빠세나(upasenā)이다.

[vs. 24-26] 그 [땃싸부처님, 승자의 신장은 60라타나(27m)이고,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것이 마치 히말라야 산과 같아 보인다. 비할 수 없는 광명을 가진 그부처님의 수명은 누구보다 긴데, 10만년 동안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에 머문다. 최고로 고귀하고, 뛰어난 큰 명성을 향유하고, 불덩이처럼 불타 오른 후, 그 [땃싸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반열반에 드신다.

[vs. 27-28] 비구름이 바람에 의해 [사라지고, 이슬이 태양에 의해 [사라지고, 어둠이 등불에 의해 [사라지는 것처럼, 그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반열반에 드신다. 뛰어난 승자인 땃싸 부처님은 난다숲속사원(nanda-ārāma)에서 반열반에 드신다. 거기에 그 승자땃싸 부처님을 위한 탑이 세워지는데, 높이가 3요자나(33m)이다.

*주석1 : 여기의 불종성경은 세존이 정각 후 처음 자신의 고향인 까벨라와투를 방문할 때 자신의 친족들에게 이중신통을 보인 후에 설하였다고 한다. [KN-Bvm-a-gaṇṭharambha-katha]

*주석2 : 여기에 나오는 큰 숫자들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매우 '큰 수' 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주석3 : 불종성경(KN-Bvm ch.2, n. 69)에서는 옷따라와 난다따를 마치 두 사람인 것처럼 기록하지만, 앙곳따라 니까야(AN1, n. 262)에서는 한 사람으로 나타난다.

*주석4: 원문의 계승 13-14번에서는 수기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요약되어 있는데, 곧단나 부처님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vs 11-21)에 근거하여 생략된 부분을 보완한다.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2017년 5월 3일, 음력 4월 8일은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이다.

2561년 전, 이 땅에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오직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일념으로 뼈를 깎는 고통에 굴하지 않고 고행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정각(正覺)을 이루셨다. BC 563년 음력 4월 8일 해뜰 무렵 석가모니 부처님은 룸비니 동산의 무우수 나무 아래서 탄생하셨다.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일곱걸음을 걷고 난 뒤, 두 손으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사자후를 외쳤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모든 생명 존귀하다.

세계의 고통 받는 중생들을 내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자후는 고통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선언이다. 즉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눈먼 중생들을 위하여 걸림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부처님의 이러한 선언은 태자의 신분을 버리고 6년간의 고행 끝에 부다가야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다섯 비구를 상대로 법을 설함으로서 시작하였고, 이후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중생들을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셨다.

큰 깨달음으로 열반 성취

부처는 산스크리트어 ‘붓다’ (Buddha)에서 따온 말로, 깨달은 사람을 뜻한다. 깨달음이란 단순한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며, 부처님이 체험을 통하여 증득한 것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또한 배워서 알아야 하는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그 가르침을 믿고, 그에 따라 실천 수행해야 한다. 깊고 참된 진리를 깨달은 이는 마침내 생사의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진, 불교 최고의 이상인 열반(涅槃)을 성취한다.

부처님은 모든 이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고통 속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부처님이 나신 곳은 호화찬란한 궁궐이 아니라 길가의 동산 위다. 길에서 나서 길에서 살다 가신 부처님의 탄생은 그 자체가 중생에 대한 끝없는 연민과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

모든 중생은 스스로 존귀하고 삶의 주인공임을 일깨워 주신 부처님의 탄신을 기념

하는 부처님오신날은 불탄일(佛誕日) 또는 욕불일(浴佛日)이라고도 하나, 민간에서는 흔히 초파일이라고 한다. 석가의 탄생일이기 때문에 원래는 불가에서 하던 축의행사(祝儀行事)였으나 불교가 민중 속에 전파됨에 따라서 불교 의식도 차츰 민속화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신라는 여러 가지 불교 행사가 성했는데, 무열왕과 김유신 장군이 불교를 호국의 바탕으로 참여시키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불교행사는 이전부터 전해오던 세시행사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병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라의 팔관회(八關會)는 불교행사가 신라의 세시풍속으로 승화된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월 초파일은 불도의 행사가 신라의 호국불교로 승화된 이래 후삼국을 거쳐서 고려조에 이르는 동안 우리의 민속과 동화되었던 것이다.

세시풍속으로 자연스럽게 동화

《삼국사기》의 백제와 고구려 본기에는 불도의 행사가 세시의 행사로 거행되었다는 기록은 없으나 신라본기에서는 석가모니 탄생일을 팔관회로 거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고려사》에 따르면, 왕성(王城)에서 시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정월 대보름에는 14일, 15일 이틀간 저녁에는 연등(燃燈)을 하던 풍속이 있었으나 최이(崔怡)가 4월 8일로 옮겨서 하게 하였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사월

초파일은, 불교의 축의행사로 전래되었다가 민간의 세시풍속과 자연스럽게 동화되면서, 신라의 팔관회, 고려의 연등회 등을 거치면서 완전히 정착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두운 세상에 환한 불 밝히시다

연등(燃燈)은 번뇌와 무지로 가득 찬 무명(無明)의 세계를 부처님의 지혜로 밝게 비추는 것을 상징한다. 때문에 등을 밝힐 때는 맑고 지극한 신심으로 임해야 한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믿음으로 심지를 삼고 자비를 기름으로 삼으며, 맑은 생각을 그릇으로 하고 공덕을 빛으로 하여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없앤다’고 했다.

연등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연등을 공양하는 의미는 번뇌와 무명의 어두운 세계를 부처님의 지혜로 밝게 비추는 것을 상징한다. 현우경 빈녀난타품을 보면 부처님이 영취산에 계실 때, 난타라는 가난한 여인이 등불을 켜 부처님께서 오시는 길을 밝히고 싶었으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 여인은 할 수 없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동전 두 닢을 빌어 등불불을 밝혔 다. 그런데 그날 밤을 밝힌 다른 등들은 다 꺼졌지만 그 여인이 지극한 서원과 정성으로 밝힌 등불만이 끝까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을 본 부처님께서 “이 여인은 등불

공양의 공덕으로 성불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 부처님 당시부터 등공양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초파일 행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제등 행사는 신라 때부터 풍년과 국가발전을 기원하던 예술제 성격의 연등회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연등놀이를 하는 초파일 저녁을 등석(燈夕)이라고 하는데, 이 날은 야간의 통행이 허락되기 때문에 서울 장안의 사람들은 산기슭에 올라가 달아놓은 등을 구경하거나 제등행렬을 하면서 밤새도록 즐겼다. 또 등간에 매달린 등 줄 사이에 솟과 사기 파편을 넣은 주머니를 매달고 불을 붙여 터뜨리며 불꽃놀이를 즐기기도 했다.

회전등, 주마등이라고 해서 등 안쪽에 호랑이, 사슴, 노루 등의 모양으로 자른 종이를 끼워 넣어 등 안에서 회전하게 함으로써 그림자를 감상하기도 했다. 초파일 등은 각종 기록이나 민요 등을 통해 볼 때 그 종류가 40여종이나 된다.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기 위한 석류등, 수박등, 마늘등을 비롯하여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한 거북등, 학등 등을 달았다.

관욕으로 세속의 인연을 씻는다

관욕(灌浴)이란 다겁생래(多劫生來)로 쌓아온 영가(靈駕)의 번뇌를 청정케 해주려는 의식으로, 청정한 마음자리에서 본다면 자신

을 규정하려는 모든 것은 번뇌일 수밖에 없음으로 삼보의 가지력에 의해 온갖 세속 인연을 씻고 청정한 본래 마음을 회복케 해주려는 것이다.

관욕이란 부처님을 목욕시켜 드린다는 뜻으로 관불(灌佛), 욕불(浴佛), 관정(灌頂)이라고도 한다. 관욕의식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홉 마리 용이 나타나 오색 향수로 부처님을 씻어 주었다는 것에 근거하여 오늘날에도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각 사찰에서 행해지고 있다.

관욕의식은 우리 스스로가 모든 탐욕의 때를 씻는 것을 상징한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더러운 생각에서 벗어나 깨끗한 지혜를 성취하며 부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원을 세우며 봉행하는 엄숙한 의식이다. 이에 우리 불자들은 관욕을 통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을 없애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져 정신이 공허해지는 요즘, 온 누리에 밝은 빛을 비쳐 모두가 행복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인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자비사상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온다. 이에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것은 물론 ‘참 나’를 찾겠다는 분

발심을 내고 부처님의 중생구제 원력을 세워 실천하도록 해야 하겠다. 중생의 병의 종류에 맞춰 약을 주셨던 부처님과 같이 우리 불자들은 이 시대의 중생의 고통에 맞게 처방을 해주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부도암(浮屠庵)의 관음전(觀音殿)과 선원

전일주 / 문학박사



1. 부도암 관음전

白衣觀音無說說(백의관음무설설)
 南巡童子不聞聞(남순동자불문문)
 瓶上綠楊三際夏(병상녹양삼제하)
 巖前翠竹十方春(암전취죽시방춘)

흰옷 입으신 관음보살 설함 없이 설하고
 남순 동자는 듣지 않고 들었네.
 병 위의 푸른 버들은 영원한 여름이요,
 바위 앞의 푸른 대나무 시방의 봄이로세.

관세음보살을 모셔둔 관음전(觀音殿)은 산 자락의 풍경과 어울려 매우 아름답게 느껴진다. 이 건물의 기둥에 걸린 글귀는 《석문의범(釋門儀範)·향화청 가영(香花請歌詠)》에 나오는 내용이다. 관음전의 편액과 주련의 글씨는 당대의 대선사이자 명필로 알려진 경봉(鏡峰) 스님의 필적이다. 유려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행초서(行草書)체로 구사하였기에 안복(眼福)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글씨이다.

제2구의 ‘남순동자’는 관세음보살을 왼쪽에서 협시(挾侍)하고 있는 보살이며, 제3구의 ‘삼제(三際)’는 시간을 나타내는 전제(前際), 중제(中際), 후제(後際)를 말한다.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하는 삼세(三世)와 같은 말이다.

부도암(浮屠庵)은 동화사의 산내 암자로 팔공산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동화사의 경내 주차장 뒤쪽으로 500m 정도 산을 오르면 길 왼편으로 아담하게 보이는 암자이다. 암자의 이름을 ‘부도암’이라고 한 것은 스님



들의 유골을 모셔둔 탑인 부도가 있는 곳에 절을 지었기 때문이다.

이 암자는 1658년(효종 9년) 도오(道悟)스님이 창건하였으며, 1790년(정조 14년)에 춘파(春坡)스님이 중수하였다. 원래는 절 뒤 서쪽 산기슭 12기의 부도가 있던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가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는 설이 있다. 한때는 72명의 스님들이 이곳에 머물 정도로 동화사의 부속암자 중 가장 규모가 컸다는 기록도 보인다.

1955년 상명스님이 주석하면서 비구니 참

선 도량으로 사찰의 격을 한층 드높였으며,
1964년 기역자형인 법당을 신축하였다. 이
법당은 선원으로서 부도암의 중심을 이루며,
그 좌측으로 관음전과 요사채 2동이 자리하
고 있고, 오른쪽 뒤로는 산신각이 있다.

2. 부도암 선원(禪院)

[無常(무상)]

一片殘月照寒林(일편잔월조한림)
數莖白骨依蓬蒿(수경백골의봉호)
한 조각 지는 달이 차가운 숲을 비추니,
몇 줄기 백골이 다복쑥 속에 뒹구네.

[安貧(안빈)]

破衲蒙頭兀然坐(파납몽두율연좌)
富貴榮譽雲外夢(부귀영예운외몽)



누더기 옷 더벅머리로 꼴꼴이 앉았으니,
부귀영예가 한갓 구름 밖의 꿈이로다.

[精勤(정근)]

運水搬柴古家風(운수반시고가풍)
種田博飯眞活計(종전박반진활계)
물을 길고 땀감을 나르는 것은 예전부터 전해
오는 가풍이요,
농사짓고 밥 짓는 것은 진실로 삶의 계책이라
네.

[貞節(정절)]

喪身滅道色爲最(상신멸도색위최)
千纏萬縛入鑊湯(천전만박입화탕)
몸 망치고 도를 멀하게 하는 것은 여색이 최
고이니,
천 번 만 번 얹고 읊어 가마솥 끓는 물 속에
넣으리라.

[因果(인과)]

種豆生豆影隨形(종두생두영수형)
三時業果如鏡照(삼시업과여경조)
自作自受無迴避(자작자수무회피)
那得怨天更尤人(나득원천갱우인)
콩을 심으면 콩을 얻듯이 그림자는 모습을 따
르듯이,
삼시에 지은 업의 과보가 거울에 비치듯이,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으니 피할 수 없네.
어찌 하늘을 원망하며 다시 사람을 탓할 수
있으리.

[慎獨(신독)]

莫道暗室無人見(막도암실무인견)
神目如電毫不漏(신목여전호불루)
어두운 방중에서 보는 사람 없다고 말하지 말
라.
귀신의 눈은 번개와 같아 털끝만큼도 놓치지

않는다네.

[下心(하심)]

法界盡是毘盧師(법계진사비로사)

誰道賢愚貴與賤(수도현우귀여천)

법계가 모두 비로자나 부처님이시니

누가 현명하다 어리석다 귀하다 천하다고 말
하는가?

[省心(성기)]

欲覓我是不得時(욕역아시부득시)

便得四海大安然(편득사해대안연)

나의 옳음을 찾고자 해도 찾지 못할 때,
곧 온 세상이 크게 편안해 질 수 있으리라.

[利他(이타)]

嗟嗟浮世極痴人(차차부세극치인)

種荊栽棘望仙桃(종형재극망선도)

利己害人即自決(이기해인즉자결)

爲他損身是活路(위타손신시활로)

아! 세상의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시를
심어 두고서 하늘복숭아 맺기를 바란다네.
자기를 이롭게 하고 남을 해치는 것은 곧 스
스로를 해치는 것이요,
남을 위하여 자신이 손해 보는 것이 사는 길
이로다.

[回頭(회두)]

貪着夢中一粒米(탐착몽중일립미)

失却金臺萬劫糧(실각금대만겁량)

無常剎那實難測(무상찰나실난측)

胡不猛省急回頭(호불맹성급회두)

꿈속에서라도 탐내고 집착한 한 알의 곡식 금
대에서 나오는 만겁의 양식을 잃게 되리라.
무상한 찰나는 실로 헤아리기 어렵나니,
어찌 맹렬히 반성하여 급히 머리를 돌리지 않
으리오.

선원은 부도암의 중심 건물이다. 높은 석
축 위에 서 있는데, 10여 단의 돌계단을 오르
면 널따란 마당이 나오고 그 마당 전면에 당
당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40년 전인 1964
년에 신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선방은
기역자형 2칸 겹집이며 정면 8칸, 측면 2칸
의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다. 지대방과 큰방
을 합쳐서 약 30명이 정진할 수 있는 규모이
다. 큰방에는 석가모니불이 모셔져 있으며,
나무를 때는 채래식 난방으로 편안한 느낌
을 주고 있다.

부도암 선원에 걸린 주련은 전부 26구이
다. 건물 4면 기둥에 모두 걸어 두어서 비교
적 많은 편이다. 이 주련은 내원사에서 범공
양문으로 발행한 책 속의 〈납자십계(納子
十偈)〉에 있는 것이다. 〈납자십계〉는 수행
승으로서 견지해야 할 마음가짐을 노래한
게송이다. 하나의 게송마다 7언 절구로 읊
은 것으로 전체 내용은 40구로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26구를 선택하여 선원의 기둥에
걸어 두었다.

편액 글씨는 전체적으로 해서체이지만, 행
서의 기운이 있어 매우 자연스런 느낌을 주
는 편액서(扁額書)이다. 주련의 글씨는 중국
육조시대에 유행했던 서풍(書風)인데, 엄정
한 결구와 웅장한 필력이 잘 발휘된 작품이
다. 글씨를 쓴 사람은 대구에서 활동하는 석
저(石渚) 추진호(秋珍鎬) 선생이다.



화엄세계의 중심 사찰 전남 지리산 구례 화엄사

아름다운 풍광과 중후하고 장엄한 산세를 지니고 있는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는 유명한 사찰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연곡사를 비롯해 쌍계사, 실상사, 대원사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고찰들이 즐비하다. 그 중에서도 지리산 노고단으로 향하는 골짜기 안, 매우 깊은 계곡에 자리 잡고 있는 화엄사는 백제 화엄종의 종찰로 지리산에서 대표적인 고찰 중 하나이다. 화엄사가 있는 계곡은 한때 8원 8암자가 있었던 화엄의 불국세계라 불리는 화엄동천이다. 화엄사는 오랜 역사를 통해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여전히 맑은 물이 쏟아지는 계곡과 수려한 산세와 어우러진 풍광은 변함없이 불자들을 포근히 맞이해주고 있다.



각황전(국보 제67호)



각황전 앞 석등(국보 제12호)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인 화엄사(華嚴寺)는 544년(백제 성왕 22)에 인도 승려 연기조사(緣起祖師)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의상대사가 670년(신라 문무왕 10)에 화엄사를 중수했으며 장육전(丈六殿)을 짓고 화엄경을 등에 새겨 벽에 들렀는데, 이때부터 화엄사는 화엄종의 모태가 되었다고 한다. 이어 의상대사가 677년(신라 문무왕 17)에 화엄사를 '화엄십찰'의 도량으로 삼으면서 화엄사는 화엄세계의 중심을 이루는 곳이 되었다.

신라 말 도선국사에 의하여 크게 확장되었고, 고려 광종 때 홍경선사가 퇴락한 건물을 중수하였다. 인종이 정인왕사(定仁王師)로 하여금 절을 중수하게 하였고, 1172년

(명종 2) 도선국사의 비를 세우도록 하였으며, 충숙왕 때에는 조형왕사가 대대적인 보수를 하였다.

화엄사는 임진왜란 때 완전히 불타버렸고, 석경(石經)마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이에 벽암 각성대사가 1630년(인조 8)에 중건을 시작하여 7년 만인 1636년에 대웅전을 비롯한 약간의 건물을 이룩하였고, 1649년 선종의 대가람으로 승격되었다.

1702년(숙종 28)에는 각성의 뜻을 이어받은 성능대사가 장육전을 중건하였는데, 숙종이 이를 각황전(覺皇殿)이라 사액(賜額)하면서 선교 양종의 대가람으로 격이 높아졌다. 화엄사의 현존 건물은 각성이 중건한 17



대웅전(보물 제299호)과 동오층석탑(보물 제132호)

세기 이후의 것이다.

다른 절과 달리 화엄사는 대웅전이 아닌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모신 각황전을 중심으로 가람을 배치하고 있다. 보물 제299호인 대웅전은 화엄사에서 가장 오래된 법당이다. 정면 5칸, 측면 3칸의 건물로서 조선 중기에 조성된 삼신(三身)의 삼존불(三尊佛)이 봉안되어 있다. 757년에 제작된 보물 제1363호 대웅전삼신불탱(大雄殿 三身佛幀)도 있다.

국보 제67호인 각황전은 정면 7칸, 측면 5칸의 2층 팔작지붕으로 그 건축수법이 뛰어나다. 각황전 내부에는 3불4보살상이 봉안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불전으로, 본래 이 자리는 의상조사가 둘레 화엄경을 새기고 황금장육불상을 모신 ‘장육전’이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고 1702년(숙종

28) 때 중건된 뒤 각황전이라 일컬었다. 각황은 부처님을 깨달은 왕(성인 중에 성인)이라는 뜻과 속종 임금에게 불교 사상을 일깨워 주었다는 뜻으로 ‘각황전’이라고 한다.

화엄사에는 국보급과 보물급 문화재도 많다. 국보 제12호인 각황전앞석등은 높이 6.36m나 되는 현존하는 국내 석등 중에서 가장 큰 것이며 통일신라시대의 웅건한 조각미를 간직한 대표 작품이다.

국보 제35호인 사사자삼층석탑은 네 마리의 사자가 머리로 석탑을 받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앙에는 합장을 한 채 머리로 탑을 받치고 서 있는 승상(僧像)이 있다. 금방이라도 튀어오를 듯 생동감 넘치는 사자의 모습은 물론, 기단과 탑신에 새겨진 화려한 조각들은 통일신라의 빼어난 예술성을 고스



화엄사 전경

란히 보여준다.

원통전 앞에는 네 마리의 사자가 이마로 방형(方形)의 석단(石壇)을 받치고 있는데, 이를 흔히 원통전 앞 사자탑(보물 제300호)이라고도 한다.

대웅전 앞에는 양식을 달리하는 동서로 쌍탑이 있다. 보물 제132호인 동오층석탑과 보물 제133호인 서오층석탑은 크기는 서로 비슷하지만 조각과 장식이 화려한 서탑과 달리 동탑은 단층기단으로 아무런 장식 없이 단정하다. 동서탑은 신라 말 헌강왕 원년(875)에 도선국사가 조성한 것이다. 신라, 백제의 양식이 혼합되어 있다.

장륙전의 사방 벽은 화엄석경(華嚴石經)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보물 제1040호인 화엄석경(華嚴石經)은 불행히도 임진왜란의 병화로 장륙전이 불탈 때 파괴되어 파편만

이 남아 있다. 화엄사 영산회 괘불탱은 1653년(효종 4)에 조성된 것으로서, 1997년 국보 제301호로 지정되었다.

화엄사는 수려한 지리산과 더불어 화엄의 꽃이 만발한 연화장의 세계이자, 부처의 지혜와 광명이 가득한 불국토이다.

찾아가는 길

광주대구고속도로 남원나들목에서 빠져나와 남원교차로까지 간다. 그곳에서 순천 함양방면으로 좌회전해 고죽교차로가 나오면 순천 방면으로 우회전해 달리면 구례 광의사거리가 나온다. 광의사거리에서 19번 국도를 타고 달리다가 냉천삼거리에서 좌회전에 18번 국도를 탄다. 마광삼거리를 거쳐 계속 직진하면 화엄사가 나온다.

법왕사 소식

춘계 합동영가천도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지난 3월 30일 1백여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춘계 합동영가천도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불자들은 부처님전에 선망부모와 조상영가의 왕생극락을 기원하고 무주고혼의 천도도 기원하였습니다.

식목일 1인 1식수 행사 가져

법왕사에서는 지난 4월 5일 식목일을 맞이하여 경내에 조경수를 심는 1인 1식수 행사를 가졌습니다. 주지스님과 불자들은 경내 조경을 위한 각종 나무들을 심어 부처님의 도량을 장엄하였습니다.

산신단 입구 용왕단 정비



법왕사 본당 뒤편 산신단으로 가는 용왕단 공사가 마무리되어 한결 정돈되고 엄숙한 참배 분위기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길을 고르게 닦아 연세가 높으신 불자들도 수월하게 용왕단과 산신단을 참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일스님의 법구경 특강 개강

도솔암 법사이신 관일스님의 법구경 특강이 6개월 과정으로 개강합니다. 야간반으로 개설되는 이번 강좌에 동참하실 신입회원을 모집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강의일정은 추후 공고할 계획입니다.

정유년 윤5월 생전예수재 봉행

정유년 윤5월을 맞이하여 오는 5월 31일 생전예수재 49일 기도법회를 입재합니다. 생전예수재란 윤달이 드는 해에 사후에 치를 49재를 살아생전에 미리 닦는 법회로 크나큰 공덕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불교의 고유한 의식으로 생전의 죄업을 참회하고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백고좌법회 제55일차 이동법회 회향



법왕사에서는 백고좌법회 제55일차인 지난 4월 9일 오대산 월정사, 상원사, 적멸보궁으로 삼사순례 이동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번 이동법회에는 대형 버스 2대에 80여 불자들이 동참하였습니다. 이번에 순례한 세 사찰은 오대산에 위치한 유서 깊은 사찰로 특히 적멸보궁은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 가운데 하나로 불자라면 누구나 한번씩 참배하는 도량이며 불자들은 뜻 깊은 불공을 올렸습니다.

제33회 백고좌 영가천도 49재 봉행

법왕사에서는 지난 4월 5일 제33회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를 입재하였습니다. 이번 49재는 백고좌법회 기간 동안 매일 기도를 올리면 5월 23일 회향합니다. 법회 기간 중 조상영가 천도재를 올리므로써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이번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영일스님의 원형불교 이해 강의 종강

불교대학의 한 강좌로 2년 동안 지속된 영일스님의 '원형불교 이해' 강좌가 지난 4월 14일 종강하였습니다. 스리랑카에 유학하여 10여년 동안 원시불교를 연구한 영일스님의 이번 강좌는 매우 값진 과정으로 부처님 재세시와 열반 직후의 초기불교의 모습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초파일 앞두고 대등작업 한창



초파일을 앞두고 법왕사에서 대등 만들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등은 초파일 당일 도량을 장엄하고 법당에서 일년 동안 불을 밝힐 것입니다.

4월 22일 만불 점안식 봉행

지난 4월 22일 대적광전에서 새로이 봉안한 만불에 대한 점안식을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점안식에는 모두 1백여불이 접수되어 불상에 참배의 대상으로 생명력을 불어넣는 점안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만불을 봉안한 불자들이 모두 동참하여 자신만의 원불을 모시게 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제48회 법왕사 경로잔치 열려

법왕사는 4월 29일(토) 복지관 전실에서 지역 어르신 1천 여분을 초청하여 흥겨운 잔치 한 마당을 베풀는 경로잔치를 엽니다. 법왕사 개원 이래 매년 두 차례씩 개최해 온 경로잔치는 수성구와 남구 등 법왕사 주변 지역 어르신들의 신나는 잔치로 자리잡았습니다.

우담바라합창단 신임 임원진 선임



법왕사의 우담바라합창단 새 임원진이 선출되었습니다. 새 단장에는 박정애(천진성) 보살이, 수석 부단장에는 황미선(자수행), 부단장에는 심정미(자인화), 최순연(문수성), 윤계화(감로성) 보살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총무에는 유영륜행, 악보장에는 박재희, 파트장에는 장후남, 류은정 보살이 선출되었으며 고문에는 박경란, 하정현, 이임숙 보살이 위촉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담바라합창단은 20여명의 신입회원 보강과 함께 새로운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새 임원진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박정애 단장은 현재 대구경북 불교연합합창단 회장으로 재임 중입니다. 그동안 단장 소임을 다해주시는 황미선 법우님께 감사하며 수석부단장으로 계속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멸보궁 순례법회 봉행

제33회 백고좌법회 회향에 즈음하여 법왕사에서 적멸보궁 순례법회를 봉행합니다. 순례코스는 태백산 정암사, 사자산 법흥사입니다. 이 두 도량은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에 속하는 곳으로 현재 순례단을 모집 중이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우담바라합창단은 4월 8일 저녁 국제보상공원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점등행사에 동참했으며 4월 28일 오후 6시에는 신천 둔치 야외특설무대에서 열린 달구벌 연등합창제에 참가했습니다.

일진행 보살께서 자작 시집 '다시 태어남으로' 30권을 보시하셨습니다.

새로 오신 법우님

하태기 박정에 최순연 윤계화
법왕사의 새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혜와 복덕이 넘치는 신행생활 하시기 기원합니다.

사보 도움 주신 분

김정자 효범스님

공양 올리신 분

◎ 공양미 올리신 분

한정익표 이세정 제갈탁 윤운분교 성 윤
심보현 심규웅 박동근 박대희 정영웅
김명희 김무연 박무착심 이세정
신동애 한오계식 박계옥 장해원

◎ 떡공양 올리신 분

김정미 양문갑 양영갑 신재호 이세정 장재혁
김호연 권상태 정영미 허윤서 신동애

◎ 과일공양 올리신 분

강유미

◎ 삼사순례 공양 올리신 분

강유미 구실상화 김근태 성 윤
윤건볼심 이마하심

◎ 물품 보시하신 분

박정에 박종성

◎ 경로잔치 후원하신 분

최태희 이재우 관음희 김호연 김상한
김영홍 진성심 이영석 김천엽 김근태
배해동 성 윤 박동균 허정현 지장회
김종황 김정숙 사공순옥 구실상화 KT진여회

불사 올리신 분

◎ 대적광전 인등 올리신 분(원쪽 인등)

537 김순조 538 박정옥 539 김희향 540 김범수
541 유진아 542 김중호 543 김재유 544 전정광
545 이일심원 546 전진홍 547 전상혁
548 박은희 549 김종필 550 안중현 551 안재현
552 안상현 553 오건덕화 554 안준범
555 오경화 556 김태운 557 김영환 558 박영숙
559 최은영 560 이향숙 561 임정아 562 임형민
563 이종화 564 권은정 565 이창현 566 이현지
567 정순덕 568 권상혁 569 강기찬 570 강민수
571 이지혜 572 한선동 573 김말조 574 한명환
575 한영환 576 김애경 577 한지민 578 한정민
579 황보일 580 김재순 581 황보인 582 박영은
583 황보정 584 이한국 585 이승재 586 이지현
587 이지영 588 이지선 589 이동희 590 이지원
591 김문순 592 김성훈 593 장영원 594 장영환
595 하상훈 596 이숙희 597 장재혁 598 전숙환
599 장재봉 600 조정훈 601 조은우 602 윤락희
33 서영성 34 조아윤 60 박소범 61 정월선
62 박정숙 63 이재학 64 이성란 65 권택훈

◎ 본당 인등 올리신 분

173 하태기 174 허세현 175 허소란 356 이호찬
357 김정숙 358 이정민 359 이상민 360 이지민

◎ 본당 대등 올리신 분

1 김동태 2 해동종합건설(주) 김동태

◎ 본당 일년등 올리신 분

11 김중호 12 박무착심

◎ 본당 꽃등 올리신 분

1 이동학

◎ 산신인등 올린 분

269 박진훈 274 금태운 275 박은혜

◎ 범종 불사하신 분

김용균 박용근

◎ 단집 불사하신 분

박진훈

◎ 한평불사 올린 분

최재훈(1평) 최윤재(1평) 최용석(2평) 오광진(2평)
권오삼외 주식제자 일동(14평) 정우진(1평)
김정국(3평) 주상준(1평) 오광진(1평) 김성훈(1평)
최정환(1평) 전형진(1평) 김제경(1평) 최민우(2평)
주상준(1평) 최준혁(2평)

◎ 일년등 올린 분

228 김상자 229 권태모 230 이정상 231 문국연
232 박무착심 233 정연국 234 최옥남 235 박경영
236 김호연 237 이길우 238 백경원 239 김임태
240 김분용 241 최지혜 242 이원석 243 심보현
244 박동근 245 권재성 246 강점구 247 홍유식
248 제갈욱 249 박태철 250 김철수 251 추재천
252 김두섭 253 권동오 254 금건수 255 고재등
256 김재현 257 신재국 258 김화선 259 이수정
260 김상원 261 장원석 262 이옥남
263 복자림불교교실 일동 264 황하기
265 오귀중 266 김진형 267 김옥란 268 이진철
267 김옥란 268 이진철 269 채종호 270 윤중수
271 손영기 272 김옥희 273 정영웅 274 권중환
275 강현성 276 김옥자 277 문춘을 278 권철용
279 김창진 280 최상윤 281 김만기 282 김승우
283 최수길 284 박지원 285 정여근 286 이현우
287 강정선 288 김태영 289 정연국 290 정연직
291 정연목 292 정연석 293 신동희 294 박인두

295 장철영 296 엄희섭 297 변성섭 298 이선봉
299 김도형 300 김영창 301 양귀순 302 김 건
303 이현동 304 이호찬 305 이병덕 306 배성한
307 윤금숙 308 구자운 309 정갑순 310 박남희
311 최규철 312 박동숙 313 신용홍 314 손정규
315 구승우 316 구제욱 317 김호연 318 강경훈
319 임재형 320 김광희 321 이일희 322 양창호
323 윤귀웅 324 정하삼 325 강산원

◎ 영가등 올린 분(복위자)

25 오세철 26 오병화 27 박봉희 28 권혁일
29 이점예 30 윤병수 31 이강원 이강문
32 황금석 33 양문갑 34 황춘연 35 공세표
36 권귀정 37 백순도 38 김용균 39 이진철
40 김영우 41 이상호 42 김상철 43 김기수
44 권말분 45 정연국 46 정연국 47 정연국
48 정연국 49 정연국 50 신동희 51 박인두
52 안해옥 53 김영홍 54 김상한 55 유재영
56 이정숙 57 조영간 58 최홍규 59 신재호
60 김현주 61 김현주 62 최용식 63 최영희
64 권영숙 65 박남희 66 지세환 김태정 지인환
67 정현웅 68 김기수 69 정 돈 70 문충덕
71 김창득 72 강봉호

◎ 초파일등 올린 분

1 신운균 2 신현욱 3 신현섭 4 김진구
5 이원석 6 조현준 7 이종락 8 신종수
9 김옥출 10 한금복 11 권순영 12 김현태
13 신구자 14 이시우 15 김중범 16 나영연
17 김찬호 18 박근수

◎ 단청등 올린 분

32 (주)금광테크 33 진영규 34 최창덕 정순천
35 김우경 강해숙 37 다산미디어 강영도
38 조원불교 김수열 권봉자 39 이윤수

◎ 대등 올린신 분

10 해안불교 미술원 11 동원토건 12 한진기사식당
13 와우노래방 14 육법공양회원일동 15 조철제
16 오복부동산 17 권오암 18 국회의원 광상도
19 동양식품 강상훈

◎ 대등(2) 올린신 분

13 남도운수 14 강선옥

◎ 꽃등 올린신 분

107 신현중 108 박종한 109 김재수 110 지익근
111 배병찬 112 최의진 113 정영선 114 박재범
115 김상수 116 장관덕 117 백정자 118 조재호
119 조명희 120 박종길 121 박준성 122 박경준
123 조성훈 124 정현균 125 김세활 126 박종거
127 조준승 128 정연수 129 조병완 130 신현욱
131 신종태 132 신격기 133 진영규 134 유재형
135 심재일 136 류한일 137 지성한

◎ 오백나한 불사하신 분

63 정민경 72 심규암 74 최홍규 75 이선자
78 정택상 80 이진영

◎ 만불전 1인원불 봉안하신 분

3550 천치만기 3551 천송상수

왕생극락하옵소서

- ◆ 천민해수 영가 기제사가 4월 1일에 있었습니다.
- ◆ 천우익진 영가 막재가 4월 2일에 있었습니다.
- ◆ 천정준식 영가 기제사가 4월 4일에 있었습니다.
- ◆ 천최만기 영가 막재가 4월 7일에 있었습니다.
- ◆ 천진은지 영가 기제사가 4월 9일에 있었습니다.
- ◆ 천고세옥 영가 기제사가 4월 13일에 있었습니다.
- ◆ 천김기섭 영가 기제사가 4월 14일에 있었습니다.
- ◆ 천김해 김공 영가 기제사가 4월 16일에 있었습니다.
- ◆ 천허명수 영가 막재가 4월 16일에 있었습니다.
- ◆ 천송상수 영가 막재가 4월 16일에 있었습니다.
- ◆ 천문위순 영가 막재가 4월 23일에 있었습니다.
- ◆ 천이정화 영가 막재가 4월 29일에 있었습니다.
- ◆ 천이춘식 영가 기제사가 4월 30일에 있었습니다.
- ◆ 이성용 복위 상세선망 조상천도재가 4월 14일에 있었습니다.
- ◆ 최재훈 복위 상세선망 조상천도재가 4월 20일에 있었습니다.
- ◆ 김보경 복위 상세선망 조상천도재가 4월 23일에 있었습니다.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월간 법왕사보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에서는 불자 여러분의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1년 정기구독료는 2만원입니다. 구독 신청은 전화나 팩스, 직접 방문 등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시는 구독료는 사보 제작은 물론 불자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법보시에 활용되는 등 큰 공덕을 쌓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익는 법왕사 종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 화 | 053-766-3747, 팩스 053-767-6095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법왕사내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 편집실



해오름 요양원 4월 소식



마술공연

부부 마술 봉사단체에서 어르신들께 신기한 마술을 보여주셨습니다. 접시돌리기, 고리던지기, 매듭풀기, 신문지 마술 등 다양하게 선보여 주셨고 그중에서도 특히 비둘기가 나타나는 마술에서는 어르신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호성을 지르시며 놀라고 신기해하셨습니다. 다음에도 멋진 마술 많이 많이 보여 주세요.



그루터기봉사단

주말을 이용해서 그루터기 학생 봉사단들이 방문하여 밑그림을 그려서 그림 안에 색종이 뜯어 붙이기를 어르신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빗꽃 만발한 날씨 좋은 봄날 꽃구경 가지 않고 어르신들 뵈러 온 학생들이 너무나 예쁘고 기뻐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은 학생들과 사진도 같이 찍으시며 즐거운 주말을 보내셨습니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교육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인 노인인권을 존중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함과 노인복지시설의 화재예방, 소방교육 및 안전관리교육, 소화기사용법 등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체 교육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생신잔치

4월 중 생신을 맞으신 어르신들에게 동료 어르신들과 우리 선생님들 모두 함께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케익에 불도 끄고 생신축하노래도 부르며 소원도 빌어보고... 케익을 나누어 드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생활하시길요!

| 개인 정기봉사자 | 안순정, 이경희, 손미령, 이수정, 배영숙(웃음치료), 윤수빈, 강진주, 윤성덕, 문자영(이미용)

| 단체 정기봉사자 | 수성시니어공연단(공연활동) 최단장공연단(공연활동) 씨포터즈(야와나들이) 친한친구(놀이활동) 행복한교육이야기(놀이활동) 어린왕자(놀이활동) 그루터기(놀이활동) 오카리나공연단(공연활동) 하모니카공연단(공연활동)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3월)

◎ 수입내역

CMS(자동이체) 후원하신 분

강병철 1만원	김수곤 5천원	김진현 5천원
강선옥 5만원	김수라 1만원	김혜자 5천원
강소남 5천원	김수원 5천원	남기웅 1만원
강영도 4만원	김수윤 5천원	노귀자 5천원
고연숙 1만원	김수자 1만원	노수정 1만원
고재옥 2만원	김숙희 1만원	도순자 5천원
구정대 2만원	김순덕 1만원	도화순 5천원
권계화 1만원	김순연 5천원	독고보경 1만원
권순득 1만원	김순태 1만원	류윤만 1만원
권순미 1만원	김양순 1만원	박경자 5천원
권순영 1만원	김영호 1만원	박귀분 1만원
권순철 1만원	김영희 5천원	박남희 3만원
권영철 5천원	김옥희 5천원	박대희 5천원
권오관 2만원	김외환 1만원	박동규 5천원
권오국 1만원	김용태 1만원	박상용 5천원
권춘자 3만원	김우영 1만원	박성숙 5천원
금명섭 5천원	김원형 6만원	박성용 5천원
김경자 1만원	김임태 5천원	박성은 5천원
김경호 1만원	김정규 5천원	박성후 2만원
김기덕 2만원	김정숙 5천원	박수진 1만원
김기수 2만원	김정숙 5천원	박순남 5천원
김대현 5천원	김정순 3만원	박순영 5천원
김만기 5천원	김정임 1만원	박원태 1만5천원
김명옥 1만원	김정자 5천원	박인철 1만원
김미자 1만원	김주현 1만원	박정묵 1만원
김미정 1만원	김진성 1만원	박종환 1만원
김미희 1만원	김진현 1만원	박치민 5천원
김민주 1만원	김진현 1만원	박희조 5천원
김봉숙 5천원	김진현 2만원	반룡사 1만원
김성의 1만원	김진현 5만원	배수현 2만원

배하수 1만원	유명옥 1만원	이호동 5천원
사공관 2만원	윤윤근 1만원	이효조 1만원
서동남 1만원	이경자 1만원	임상덕 1만원
서치경 1만원	이남희 1만원	임예숙 1만원
서호정 2만원	이명숙 1만원	장성규 5천원
성인자 1만원	이명희 1만원	장우성 1만원
손복남 1만원	이병노 1만원	장재혁 5천원
손수경 1만원	이병희 1만원	장찬규 5천원
손수연 1만원	이복희 1만원	정경석 2만원
송민경 1만원	이상혁 1만원	정경숙 1만원
송정숙 5천원	이석규 5만원	정명선 2만원
시명숙 1만원	이성자 1만원	정무시 1만원
신구자 5천원	이성환 5천원	정미화 1만원
신돈식 1만원	이승미 1만원	정민경 1만원
신세호 1만원	이승환 5천원	정숙자 1만원
신임선 5천원	이옥자 1만원	정시영 1만원
신충호 5천원	이용옥 1만원	정연이 5천원
신화식 1만원	이윤택 1만원	정옥선 1만원
심규암 5천원	이인순 5천원	정옥수 5천원
심종순 5천원	이임숙 2만원	정차기 2만원
안경순 1만원	이재봉 5천원	정태교 5천원
안명희 1만원	이전희 5천원	정혜숙 1만원
안인술 5천원	이점예 2만원	정활수 3만원
안희선 1만원	이정숙 1만원	조규인 1만원
양나영 5천원	이정연 5천원	조성자 5천원
양봉률 1만원	이정옥 1만원	조영석 1만원
양지영 1만원	이정화 1만원	조인성 5천원
양혜진 1만원	이정희 3만원	조정자 5천원
양희숙 1만원	이정희 5천원	조창신 2만원
여택동 5천원	이종희 5천원	진봉희 1만원
오난옥 5천원	이준우 5천원	채옥연 5천원
용마관음사 3만원	이채원 1만원	최분규 1만원
우정미 1만원	이하예진 5천원	최승임 1만원
유경희 1만원	이현옥 1만원	최영희 1만원

최윤희 5천원 허유미 5천원 황준원 1만원
최창숙 5천원 홍애분 1만원 황지영 1만원
한규매 1만원 홍유식 5천원 황학영 1만원
한희록 1만원 황미선 2만원

총합계 : 2,185,000원

◎ 이달의 신규 후원 신청자

김진현 가톨릭의료기 장수정 장시원

◎ 지출내역

식 재료비 : 1,000,000원
간식 구입비 : 249,740원
부식재료 구입비 : 435,380원
케익 구입 : 60,000원
CMS수수료 : 44,000원
금융결제원수수료 : 44,000원
후원금 반환 : 150,000원

총지출 : 1,983,120원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원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후원물품 보내주신 분

한울식 어르신 보호자 : 야쿠르트 45개
서윤수 어르신 보호자 : 우유 48개, 비피더스 40개, 딸기 2팩
유세모 어르신 보호자 : 카스타드 4통, 토마토 1박스

권순주 어르신 보호자 : 음료수 2박스
이봉선 어르신 보호자 : 오예스 3통, 룡스 2통, 야쿠르트 75개, 짜장면 20만원 상당
이정화 어르신 보호자 : 양말 4set, 에어매트 1매, 오렌지 1박스
박동심 어르신 보호자 : 음료수 1세트, 빵 3만원 상당
우담바라 단장 : 수건 60장
방지현 : 요플레 50개, 요구르트 50개
장석순 어르신 보호자 : 생선회 5kg, 짜장면 10만원 상당
하회물류주식회사 : 두부 600개

해오름 요양원 새가족

신규 입소 어르신

장해원 어르신

자원봉사자 모집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시~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신청방법

— T. 053-766-5767 담당 사회복지사 이상혁
— 방문접수 법원사 1층 요양원 사무실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요양원 입소 안내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새마을금고 9002-1643-4050-9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후원업체 소개



하호물류(주)(www.hahofood.com)에서는 매달 어르신들의 부식에 필요한 신선한 두부를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후원업체의 사랑과 나눔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해오름마을 건립 한가족 한평 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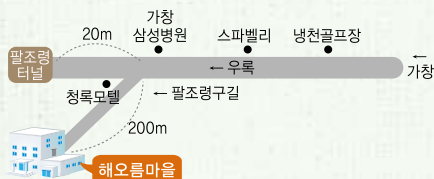
법왕사에서는 불교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해오름요양원을 개설, 편찮으신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왕사는 해오름마을 건립을 위한 한가족 한평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해오름마을은 현재 부지 4,500여평을 마련하였으며 조만간 개원법회를 봉행하고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과 우리의 전통인 효행을 실천하는 방편인 요양원 건립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동참금 한 가족 100만원(2명 이음 새겨드립니다)

문의 종무소(766-3747, 9088)

동참계좌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협 702010-51-106490 법왕사



법당 일년등 및 초파일 연등

연등은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찬탄하고 중생의 무명업장을 소멸하는 크나큰 공덕을 드러냅니다. 법당사에서는 정유년 1년을 밝힐 법당 일년등, 가족등, 사업등, 영가등과 초파일 연등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수희동참하시어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주위에도 널리 권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가등 5만원

아미타전, 석탑등 3만원

사업등 30만원~50만원

단청등 100만원(개인 사업체)

법당 일년등 10만원(만불전, 가족 이름 모두 들어감)

- 동참금은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 사업등에는 사업체 이름을 넣어 드립니다.

계 / 좌 / 번 / 호

- ◎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 ◎ 농 협 702010-51-106490 법왕사



정유년 윤5월 생전예수재 49일 기도 봉행

예수재는 죽은 후에 행할 불사를 생전에 미리 닦는 재를 말합니다. 즉, 중생이 살아 있을 때 사후를 위하여 미리 공덕을 쌓아서 지옥고를 받지 않고 왕생극락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생전예수재는 윤달이 드는 해에 지내는데 올해에는 윤5월이 들어 법당사에서는 여법한 예수재를 봉행 하려고 합니다. 불자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공덕을 쌓아 사후 왕생극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 재 : 5월 31일(음. 5월 6일)
- 회 향 : 7월 18일(음. 윤5월 25일)
- 동 참 금 : 설판 대시주자 20만원
- 생전예수재 : 1인당 3만원
- 영가천도금 : 위패 1위당 5천원

▷▶49재 일정표

재일	일자	재일	일자
입재	5월 31일 (음. 5월 6일)	사재	6월 27일 (음. 윤5월 4일)
초재	6월 6일 (음. 5월 12일)	오재	7월 4일 (음. 윤5월 14일)
이재	6월 13일 (음. 5월 19일)	육재	7월 11일 (음. 5월 18일)
삼재	6월 20일 (음. 5월 26일)	막재	7월 18일 (음. 윤5월 25일)

법왕불교대학

초·중급 및 야간반, 아함반 모집

법왕불교대학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배워 신심과 원력을 돈독하게 하기 위한 불교대학 초·중·고급 및 야간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초급반은 주지스님 직강으로 사찰예절을 비롯해 기초교리(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를 강의하며, 중급반은 스리랑카에서 10년간 유학하면서 남방불교를 깊이 연구하고 귀국한 영일스님께서 초기원형불교를 강의하며, 야간반은 주지스님과 외부 법사를 초빙하여 주요 경전을 강의합니다. 한편 아함경을 30년 동안 연구하신 제주도 연담스님을 초청, 2년에 걸쳐 아함경 전반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불교에 관심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초급, 중급, 야간반은 현재 개설 중입니다.
- 아함반은 새해 3월 신학기에 개강합니다.
- 수강료는 분기별 3만원(월 1만원)입니다.

개설반	법사	주제	시간
초급반	주지스님	기초교리(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중급반	영일스님	초기원형불교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야간반	주지스님	지장경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특강반	외부법사	주요 경전(금강경, 아미타경)	추후 공고
아함반	연담스님	아함경(2년간 연속 강의)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야간반	관일스님	법구경 특강	저녁 7시 ~ 8시 30분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나라의 안녕과 번영,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제33회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법왕사에서는 2017년 정유년을 맞이하여 2월 14일부터 5월 24일까지 제33회 백고좌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고승대덕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속으로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신라 진흥왕 때에 처음 열린 이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이 이르고 있습니다. 법왕사 백고좌법회는 1995년 처음 시작한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1~3회씩 개최하고 있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불자들에게 익숙한 법회입니다. 이번 제33회 백고좌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덕 높은 스님들을 두루 초청하여 신행 생활에 꼭 필요한 팔만사천, 금구성언의 법문을 듣고 친견하는 귀중한 기회를 가질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증명 : 중심문도회 회주 학승 심경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實相합장



● 67일차

4월 21일
특별법문
정법스님
부산 진흥사 주지



● 71일차

4월 25일
특별법문
해해스님
경산 반용사 주지



● 73일차

4월 27일
특별법문
법현스님
서울열린선원장



● 74일차

4월 28일
특별법문
세준스님
서울 동국대 교수

◆ 일시 : 2017년 2월 14일 ~ 5월 24일 (100일간)

◆ 장소 : 법왕사 복지관 4층 대적광전 ◆ 법회 : 매일 오전 9시 기도, 법문 11시

회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회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66일차	4월 20일 困	지안스님	통도사 반야암 주지	73일차	4월 27일 困	법현스님	서울열린선원장
67일차	4월 21일 囧	정법스님	부산 진흥사 주지	74일차	4월 28일 囧	세준스님	서울 동국대 교수
68일차	4월 22일 回	도오스님	경산 경흥사 주지	75일차	4월 29일 回	법정 비구니스님	서울 미타사 주석
69일차	4월 23일 回	법수스님	경주동국대 정각원장	76일차	4월 30일 回	법정 비구니스님	합천 다송사 주지
70일차	4월 24일 回	해피스님	한국테라와다불교선원장	77일차	5월 1일 回	도연스님	서울성중선 원장
71일차	4월 25일 困	해해스님	경산 반용사 주지	78일차	5월 2일 困	실상스님	법왕사 주지
72일차	4월 26일 困	실상스님	법왕사 주지	79일차	5월 3일 困	부처님오신날 실상스님 특별법회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We Can Make a World Without Discrimination

불기 2561(201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 일시 : 불기 2561년 5월 3일(수) ● 장소 : 대적광전

제1부 오전 10시

- 타종
- 개회
- 집회가
- 삼귀의
- 찬불가(보현행원)
- 육법공양
- 찬탄 경문 낭독
- 봉축사
- 축사
- 청법가
- 입정

- 봉축법문
- 봉축시
- 봉축가
- 발원문
- 어린이 발원문
- 안내말씀 및 내빈소개
- 공지사향
- 사홍서원
- 산회가
- 관불의식

제2부 오후 2시~4시

- 축하한마당



대한불교 **법왕사**
조 계 종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해오름요양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

